

브라질, 남미 바이오산업 중심 부상

아마존 국가 바이오연구센터 설립 합의 ... 보건 협력에도 21기관 참여

아마존 삼림지역을 끼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이 보건 전문가들로 구성된 바이오산업을 위한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브라질 국영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이 11월29일 보도했다.

브라질을 비롯해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수리남, 베네주엘라 등 중남미 7개국은 11월29일 브라질 북서부 아마조나스의 마나우스에서 끝난 제1회 판 아마존 보건분야 과학기술혁신회의에서 연구센터 설립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브라질 북부 파라리의 벨렝에서 열리는 브라질 과학기술발전협회 연례회의 기간에 연구센터가 구체적인 모습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 연구센터는 앞으로 아마존 지역의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바이오기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는 등 연구영역으로 활동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연구센터 설립 계획을 주도하고 있는 브라질의 오스발도 크루스 연구재단 관계자는 “보건 분야에 있어 아마존 국가들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바이오산업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산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 국가들은 2004년 브라질에서 보건분야 과학기술 협력협정을 체결했으며 현재까지 각국의 21개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30>